



일본 양계업계 부로일러 CRD(전체 발병율의 15.3%)와 콕시듐(15.2%) 피해율 높아

일본 농림성에서 발표한 1979년도 부로일러 처리장에서 조사한 도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수의사가 가금 처리장에서 육안으로 질병검사를 한 결과로 79년 일본 전국 395개의 처리장에서 1,707,745수를 조사한 결과로 이들 병계의 발생율은 8.0%로 78년도에 비해서는 1.3%가 감소하였다.

종래의 조사에서 병계의 발생율은 아래와 같다.

년 도 별	병 계 발생 율
72년도	5.3%
73 "	5.8%
74 "	6.5%
75 "	9.2%
76 "	5.2%
77 "	7.2%
78 "	9.3%
79 "	8.0%

79년의 병계 발생율을 병류별로 보면 CRD가 15.3%, 콕시듐이 15.2%로 가장 많아 부로일러에서 CRD와 콕시듐의 피해가 일본에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병 류 별	병 계 발생 율
C R D	15.3%
백 혈 병	2.0
M D	7.2
콕 시 디 움 증	15.2
대 장 균 증	3.3
포도상구균증	2.6
I · C	0.6
F · P	0.4
회 충 증	0.1
지 방 간	29.5
간 포 막 염	2.4
간 포 막 염	0.6
복 막 염	1.0
폐 염	4.2
기 낭 염	0.2
기 관 지 염	0.3
장 염	0.8
복 수(腹水)증	0.2
각 약	1.8
관 절 염	0.9
腱鞘炎, 腱斷裂	1.0
외 상 골 절	1.0
骨粗症, 骨脆弱	3.1
종양 기타 불명	6.3

가축의 각종부산물 식품화

—농개공, 메이커선정 시판계획—

육류의 소비「패턴」이 정육위주서 탈피, 종합가공식품화되어 국민의 영양보급과 국내 쇠고기·돼지고기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개공 식품연구소에 따르면 소 돼지 닭고기 등의 통조림은 물론 가축의 내장과 머리·뼈·피 등 각부분을 종합이용, 식성에 맞도록 하는 조리방법이 개발되어 생산메이커가 선정 되는대로 곧 시판할 계획이다.

농개공은 그동안 한우와 생돈의 수급이 안정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육류값이 오르고 때로는 쇠고기등은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음을 감안, 지난 78년부터 육류의 종합가공방법개발에 착수, 약 3년동안 10여명의 연구원을 동원, 우선 돼지를 이용하여 갖가지 조리방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조리방법은 이미실용화된 정육을 「햄·소세지」 「베이컨」 통조림등으로 이용하고 지방은「마가린」, 의약품·화장품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부문별 이용방법을 보면 ▶「제라틴」:돼지의 뼈와 껍질에서 뽑아낸 식품첨가물약품, 사진「필립」및 인화지의「코팅」용으로 ▶「헤드치즈」:돼지머리를 「치즈」화 ▶내장소시지:돼지내장과 혀·피·살고기껍질, 지방 등을 재료로 사용 ▶「브라드 소시지」: 돼지피와 내장·껍질 등을 이용 ▶「알부민」: 지금까지 버리던 돼지피를 도살후 즉시채취, 「알부민」을 만들고 ▶골분: 돼지뼈를 분쇄, 가축의 사료와 비료등으로 사용한다.

농개공은 현재 선정중인 생산「메이커」와 생산계약이 이루어지는대로 곧 시판, 국내 고기값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축협 계통출하 확대

축협중앙회는 축산물의 계통 출하를 확대하기위해 경기, 강원도 등에서 3개 조합을 중점출하 조합으로 선정,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축협에 의하면 지난해 계통출하 총 실적 중 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8%, 돼지는 13%로 낮은 점을 감안, 우선 작년도 생우출하 실적 5백마리 이상 조합중 3개 조합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출하실적을 높이는 한편 농민들의 계통출하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축협은 중점 출하 조합으로 선정된 조합에는 조합당 1억원 이내에서 장려금을 연리 16.5%로 지원키로 했다.

부화폐기물 단속철저

농수산부는 최근 부화장에서 약추나 솟병아리 등 부화폐기물을 유용하여 선량한 양축가나 도시시장등에서 오락의 도구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단속을 각 부화장에 지시했다.

이는 각 부화장의 폐기물인 약추 등 불량추와 산란계 솟병아리 등을 일반 상인들에게 판매하여 농촌에서는 농민들을 현혹케 하는가 하면 도시에서는 사람이 많은 시장이나 국민학교 정문앞 등에서 무지한 어린이들에게 오락의 도구로 판매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있어 당국은 법적인 제재에 앞서 부화인의 양심과 관련 전국의 각 부화장에서는 부화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화이자<주> 6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양돈 세미나 개최

금반 한국화이자<주> (대표: 김중배) 에서는 국내 양돈 분야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자돈 하리의 예방 및 치료 방안과 우수한 성장촉진제 동향에 관하여 6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외 강사를 초빙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날짜 및 장소

6월 22일 (월) 부산 크라운 관광호텔 오후 2시~8시

6월 23일 (화) 서울 프라자호텔 오후 2시~8시

2. 초청연사

○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겐센박사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가축 영양학의 대가)

○ 미국화이자 인터내셔널의 Agricultural Scientific Director 패터슨 박사

○ 서울대 농대의 한인규 박사.

중앙케미칼, 미국 메르크사와 기술제휴

<주> 중앙케미칼 (대표: 김무진)은 동종 업계 유일한 원료 의약품인 나이아신, 나이아신아미드 및 셸파디메톡신 소디움을 합성 판매하여 오던 중 지난 5월 9일 신라호텔에서 미국의 MSD Agvet와 동물용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제휴 및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가일층 판매를 강화할 것이다. MSD Agvet는 암프롤리움 및 나이카바진, 로니다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세계 최신편제인 아포코시움제인 Arpocox와 최신편제인 아포코시움제인 치아벤다졸을 생산하고 있어 배합사료 공장은 물론 양축가들에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풍진화학, 국내 최초로 Gluten Feed 개발

— 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독일 Wiegand 사의 기술도입 —

국내 굴지의 사료, 포도당 생산 메이커인 풍진화학<주> (대표: 민 병성)에서는 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Gluten feed 를 개발했다.

Gluten feed는 독일 Wiegand사의 최신편제인 농축기를 이용하여 옥수수 발효 추출액 Corn Steep Liquor, C S L)을 수분 50%, 단백질 25%로 농축, wet corn feed (습옥피)에 코팅하여 同 Wiegand사의 특수 스티프진조기

로 건조분해한 강피류 원료인데 CP20%, ME 1,830kcal/kg, TDN75 (feedstuff 1980년)인 사료의 원료로써 비타민 B군과 P의 함량이 높으며 U.G.F의 함량이 풍부하여 성장효과가 좋다. 특히 가축들의 기호성이 높아지며 반추동물에서는 사료효율의 향상에 좋다 하며 선진국에서는 양돈, 낙농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81年 여름 農民大學 개최예정

— 7월 23일 부터 전기, 후기로 나누어—

새로운 영농정보와 과학적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리위주의 연수를 실시하므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증산으로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대학이 7월 23일부터 개설된다. 지난 16년간 1백 19기에 걸쳐 1만 4천명의 수강생을 배출해 낸 농민대학은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편성된 과제를 가장 권위있는 교수, 연구관, 특농가들이 강의하게 된다. 기타 정세, 시장정보나 전망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폭넓은 농업경영을 제시해 준다. 수강에는 일정한 자격 제한이 없이 누구나 실제적인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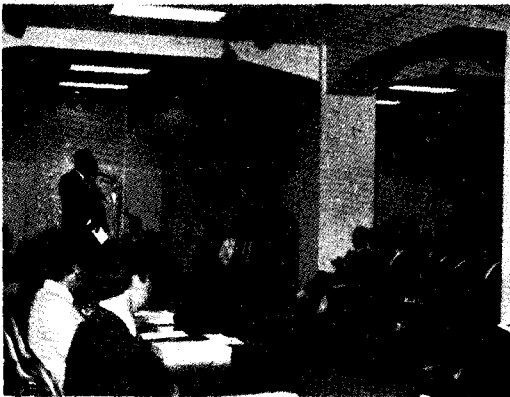
수용능력 관계로 1과 70명 정원제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수강료는 4박 5일의 숙식

비, 교재대, 선진지 실습전학비, 강사로 등 일체를 포함하여 1인 1과에 2만 7천원이다.

학사(學事)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전기반 { ①채소원예과
②과수원예과
③식량·특수영농과
- 7월 23일 (목) 오후 3시 등록마감·개강
7월 27일 (월) 오전 9시 수료전학 출발
- 후기반 { ①시설원예·화훼과
②사과·왜성사과과
③축산경영과
- 7월 27일 (월) 오후 3시 등록마감·개강
7월 31일 (금) 오전 9시 수료전학출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농업기술자회 (전화 445-1009)로 문의하기 바란다.

대한수의학회 춘계 심포지움 가져
—한국낙농비육협회와 공동주최로—



△ 정찬국 수의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수의학회(회장:정 찬국)와 한국낙농비육협회(회장:김 태신)는 5월 29일(金) 오후 1시 미국공보원에서 '젖소의 번식장애'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정 찬국 박사와 김 태신 협회장의 인사에 이어 조 충호 좌장과 일본 小野齊 박사의 강연, 그리고 정 영채 좌장과 권 중국 박사의 강연, 뒤이어 강 병규 좌장과 이 창우 박사의 강연으로 이어져 오후 5시 30분경에 그 막을 내렸다. 이날 수의학회로부터 小野齊 박사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낙농협회에서는 정 찬국 박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112명의 청중이 운집하여 강연을 경청하였다.

原乳구입값 15.4%인상

— 6월 1일부터 —

농수산부는 6월 1일을 기해 우유가공장의 원유 구입값을 15.4%올렸다.

이에따라 원유 1kg의 구입값은 종전의 2백66원에서 3백7원으로 인상 조정됐다.

농수산부는 지금까지의 원유값이 지난 80년 2월 2일에 조정된 것으로 그동안 국제곡물값 인상에 따라 국내 사료값이 크게 오른데다 농촌노임등 낙농농가의 경영비가 많이 뛰여 원유값을 인상 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부는 그동안 우려되던 우유체화(滯貨)에 따른 문제도 최근 우유소비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거의 해결된 상태라고 밝히고 우유생산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산의욕을 크게 높여 우유 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촌기술개발 워크샵 성료

— 환경개선 研究 등 상호교환 —

개발도상국의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상호교환하기 위해 「농촌종합기술개발을 위한 지역 워크샵」이 25일부터 5일동안 한국과학기술원(KIST) 국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대회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16개국에서 농촌지역 기술개발에 관계하는 33명의 외국인 학자와 국내연구기관 대학교수 5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 개발의 공통적인 문제점 타개와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농촌개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기술 ▶농수산물및 가축분뇨처리기술 ▶농촌에너지연구분야로 나누어 개최됐다.

사료 자가배합 경향 늘어

— 농경연, 조사에서 밝혀 —

양축농가들이 단미사료를 구입하여 직접 배합사용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소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조사농가의 22.2%가 직접배합을 해 왔으며 32% 농가는 직접배합을 원하고 있다.

축종별로는 양돈농가가 48.7%, 낙농이 30.8%, 양계가 21.8%로 직접배합을 원하고 있으며 규모 별로는 대규모농가에서 직접배합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직접배합을 원하고 있는것은 사료값의 절약과 직접배합을 하면 믿을 수 있고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 쓸수있기 때문이며 배합사료공장의 가격인상, 품질저하 등의 횡포

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가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농가의 기호에 만족할수도 있다.

한편 농가에서 직접배합을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옥수수등 주원료의 구입이 자유로이 되어 있지 않으며 배합사료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양축농가에 따르면 직접 배합을 적극 권장하여 축산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최소한의 사육 경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등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바이엘 세미나 개최

—생균제 바이오세린의 소개—



△이날의 강사(좌로부터 맹원재, 이원창, 한인규, 고자사, 시무라 박사)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은 새로 개발한 생균제 「바이오세린(Biocerin)」의 시판에 앞서 5월 16日(土) 오후 2시 신라호텔 2층 Dynasty Hall에서 5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달 세미나에는 중앙대 맹원재 교수, 서울대 한인규 교수, 일본 동양 구조사의 고자사 박사와 시무라 박사 그리고 건국대의 이원창 교수 이상 5분이 강사로 참석하였고 그 외에 내외귀빈 170여명과 바이엘사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성장촉진제로서의 항생제와 생균제.....
..... 서울대 농대 한인규 교수
2. 소화기관내 미생물이 가축성장에 미치는 영향중앙대 농대 맹원재 교수
3. 활성생균 아포제제 「바이오세린」소개
... TOYOJOZO 사 수의학 박사 KOZASA
수의학 박사 SHIMURA
4. 생균제의 임상학적 응용
..... 건국대 축산대 이원창 교수

바브콕농장, 불란서 이사와 제휴

산란계 바브콕 B-300V의 미국 바브콕 농장 주회사인 A·H 로빈스사가 작년 가을 바브콕 농장과 새로운 제휴 회사를 모색하여 왔는데 이번에 불란서 이사(ISA)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바브콕농장과 불란서의 이사 농장이 제휴하게 되었으며 정식 조인은 6월중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양사의 기본적인 합의에 의해 불란서의 정부 투자 회사인 반관반민의 육종회사인 ISA회사는 제약 기니아새, 배테트라 (육용계) 갈색계 (ISA부라운) 등을 불란서를 중심으로 유럽에 판매하여 왔으며 1년전 부터는 미국 조지아 주에 생산 농장을 설립하여 미국시장 개척에 발판을 만들어 왔다.

이번 제휴로 더욱 조직이 강화되고 판매가 신장될 것이라고 양사는 말하고 있다.

농수산부, 농어민 후계자 선정

—축산, 원예등 5개 부문—

우리나라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농어민 후계자가 확정됐다. 농수산부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로 11개, 시·도지사가 선정한 개인 1천 8백76명과 69개단체를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은 원예·축산·특작·미작·수산업 등 5개부문인데 개인은 1인당 3백만원~7백만원, 단체는 최고 1천만원까지 연리 5%의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대상자는 총 1천 8백76명인데 이중 축산이 전체의 74%인 1천 3백91명으로 가장 많고 원예가 14%인 2백59명, 수산업이 7%인 1백28명, 미작은 3.4%인 64명, 특용작물은 1.8%인 34명으로 가장 적다.

제12회 전국 축산인

테니스 대회 개최예정

- 6월 21일,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

제12회 전국 축산인 테니스 대회가 오는 6월 21일 (일) 오전 9시부터 안양시 소재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축산인 상호간의 친목과 대화를 통한 업계 발전 도모를 위해 축산관련 학계, 정부기관, 연구기관, 단체, 유관회사, 양축가 등 축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동 대회는 기관 및 단체장과 원로축산인으로 구성된 봉황배조, 역대 우승·준우승경력이 있는 회원으로 구성된 금배조, 일반 참가 회원으로 구성되는 은배조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모든 경기는 복식으로 3~4개조를 편성 예선 리그전에서 각조 1위팀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본 대회는 참가비가 4천원이며 참가 전 회원에게 기념품증정과 본상(봉황배, 금배, 은배), 장려상 및 우수상, 각조별 우수상 등이 증정된다.

업계 단신

○부산경남지부 사무실이전 :

6월 11일부터 동래구 은천동 180-4 부산은행 은천동지점빌딩 408호로 사무실이전.

○유창우(본회 지도조사부과장) : 양계협회를 사임하고 천호부화장 영업부로 전직.

○농수산부 육류수급안정 상황실 운영 : 농수산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전국의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매일 파악하여 육류수급 대책수립에 활용키위해 축산국장을

주축으로 관계관, 축협 등 유관기관관계자들로 구성된 육류수급안정 상황실을 설치.

육류가격안정시까지 수입육의 방출, 비축, 출하지도 및 유통단속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천호통신(주)출범 : 천호부화장(대표 : 이계조)은 효율적인 계열화 추진을 위해 영육사료공장을 인수하고 상호를 천호통신(주)로 변경하는 한편 회장에 이계조, 대표이사에 김명근, 상무에 김정웅, 감사에 이계욱, 김영환씨가 취임.



(이계조 회장)

한편 이계조회장은 박찬호 업무과장을 대동하고 효과적인 계열화 추진과, 업계발전을 위해 선진각국의 축산업계를 시찰코저 지난 5월 말 출국 일본, 자유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덴마크, 불란서, 독일 등 유럽제국과 미국등지를 돌아 7월 말경 귀국 할 예정이다.

○고려펠트 : 전남대리점 주소변경 및 부산연락소 개설

전남대리점 : 광주시 서구 백운동 652-59 ☎(8) 6428

부산연락소 : 부산시 북구 구포동 1186-25 ☎(93) 0950

○서부배합사료(주)(대표 : 변종익) : 영업부 대리에 송병국(전 영업부 주임)씨를 승진발령.

○**농협중앙회** : 대표전화 국번 변경. 73국은 723국, 75국은 725국으로, 전화번호는 변동 없어, 따라서 중앙회 대표전화는 723-0021~29와 725-2681~89, 4681~89. 농산물시세자동응답장치는 720-7411~8.

○**극동방재진흥공사** : 농장의 방역·소독장비를 공급하는 동사는 자동연포식 쥐잡이틀, 초미립자약제 살포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차량적재용 연막소독기 등을 개발 시판중에 있다. 자세한 것은 부산시 북구 학장동 275-10 ☎(92)5675, 6358로 연락바람.

○**신촌사료(주)**(대표:장동식) :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이전.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91-8 (남강빌딩 301호) 전화번호는 변경없음.

○**중원농장(대표:배선채)** : 서울경기지역 양축가서비스를 위해 김포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조규하(전 김포 가축약품근무)씨를 특채.

중원농장김포연락사무소 ☎2765, 3054.

○**천호부화장 부화업자세미나 개최** : 천호부화장(대표:이계조)은 5월30일, 31일 양일간 「한국양계업계의 현황과약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화업자세미나를 개최. 중요내용은 육용종계의 사양관리, 통계로본 한국양계산업의 현황 및 전망, 최고경영자의 판매관리 기법등.

○**금강상사(대표:김영부)** : 지난 6월 1일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사재를 털어 무료어린도서관인 금강도서관을 개관

장소:충남 대전시 동구 삼성 2동 307(금강상사 2층) ☎(72)7296(주간), (44)2846(야간)

○**동물약품협회(회장:김길원)** : 전화국번 변경으로 전화번호 변경 ☎(720)6273

○**우성실업(주)**(대표:정인범) : 천안공장준공으로 5월 1일부터 배합사료생산을 개시, 서울, 경기, 강원지역 양축업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천안 공장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발령.

공 장 장 김영래전무(전 대구공장장)
 영업부 차장 서원석 (전본사업무부차장)
 영업과장대리 길이섭 박태근
 총 무 과 장 김광호 (전본사 총무과장)
 생 산 과 장 구분화 (전 본사 생산과장)
 대 리 이성원
 경 리 과 장 윤석인 (전 본사 경리과장)
 전기과장대리 박수근
 기계과장대리 고상환

○**이화약품(대표:김상근, 이정협)** : 기획부장에 박수경(전 바이엘화학)씨를 기용.

○**(주)유한코락스(대표:홍병규)** : 영업부 영업과장에 박원순(전 양돈협회 편집실)씨를 기용하고 조성용(전 남성물산)씨를 영업담당으로 특채.



(조성용)



(이영구)

○**유일농원(대표:이규상)** : 업무부에 이영구(전대 축대졸)씨를 특채.

○**녹십자수의약품(대표:장인상)** : 기획부장에 이영상(전 레이스파크)씨를 기용.

○**남성산업(대표:최인환)** : 영업부에 김봉주(전 한일농원)씨를 특채.